

제3개정판 《새국어 표기법》 펴낸 전영표 박사 언어는 역사와 더불어 변이하는 것

글 정윤희 기자 | 사진 박신우 기자



“한 언어 또한 한 단어가 한 번 만들어진 뒤에는 달리 변경시킬 수 없다는 따위의 낡은 언어관은 버려야만 한다. 언어란 과거에 있어서의 발달된 결과로서 이루어진 것인 동시에 미래에 대한 발달과정의 출발점이 된다.”

덴마크의 언어학자 오토 예스페르센의 말대로 “언어는 역사와 더불어 변이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는 전영표 박사(상록문화정보연구소 대표 이사장)가 최근 제3개정판인 《새국어 표기법》을 펴냈다.

전 박사는 1980년부터 신구대학 인쇄학과, 출판미디어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국어표기법을 가르쳤다. 그동안 강단에서 맞춤법, 외래어 등 국어의 정서법과 씨름하면서 애매하고 문제됐던 점들이 새 규정에 의해 확연하게 나타나면서, 자료집 정리를 착수했다.

“이번 저서도 그동안 강의했던 국어 정서법의 자료를 모아 간행했던 1988년의 《새국어 표기법》을 정부가 1996년 동구·북구 언어의 외래어 표기법을 마련함으로써 개정 제2판을 냈다. 그 후 2005년과 2006년부터 쓰이고 있는 타이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등의 새 외래어 표기법을 문화관광부가 고시함에 따라 개정 제3판을 내게 됐다”고 보충했다.

제3차 개정판에는 맞춤법, 표준어와 더불어 어문정책의 4대 지주라고 불리는 외래어 표기법과 로마자 표기법도 수록했다. 1985년에 새롭게 바뀐 문법 용어표와 1972년에 선정, 확정된 한문 교육용 기초한자도 1,800자가 실렸다. 부록으로 실린 1,300여 개의 ‘일반 외래 용어’와 ‘올바른 말 찾기’도 이 책의 특색이다. 일반 외래 용어는 발음기호를 붙여 사전이 되게끔 해설을 곁들여 배열했고, 영어 이외의 외국어에 대해서는 그 현지음을 실어 어원까지 밝혔다. 특히 이번 개정판에는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이 2006년 12월 28일에 고시한 ‘편집기호 및 교정기호’의 KS규격을 한 장으로 묶어 해설해 놓았다. 이 규격은 2005년에 상록문화정보연구소가 기술표준원의 의뢰를 받아 연구한 결과이다.

전 박사는 1960년 서울대 언어학과를 졸업하고 동양출판사, 과학사, 동서출판사에서 《현대사상강좌》 《현대지성전집》 《국어학논고》 등을 기획하고 편집하면서 출판과 인연을 맺었다. 《현대사상강좌》로 제1회 한국출판문화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2002년 8월 정년을 맞이하면서 설립한 상록문화정보연구소(SMRCI)의 대표 이사장을 맡은 전 박사는 <잡지유통 선진화방안 연구> <문화산업 표준화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방안 연구> <출판 인쇄 편집문장부호·교정기호 및 책 크기 표준화 연구> <출판·인쇄 표준화 연구/편집용어 중심> 등 출판문화 표준화와 인쇄·잡지 산업진흥에 관해 연구하고 있다.

후배 출판인들을 위해 마련한 강의안을 차곡차곡 모아 3차 개정판까지 출간한 전 박사는 이제 출판계의 원로가 됐다. 그는 출판인들부터 올바른 국어생활을 실천할 것을 강조했다.

“언어는 하나의 약속된 부호입니다. 개정된 새로운 맞춤법이나 표준어를 어떻게 빨리 국민들이 받아들이느냐가 문제예요. 이 작은 책이 우리 국어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지요.”